

출장결과보고

1. 출장과제: 중국 청도농업대 초청 한·중 국제 세미나 참석
2. 출장목적: 세미나 주제 발표
3. 출장기간: 2008. 12. 5. ~ 12. 7.(2박 3일)
4. 출장지역: 중국 청도시
5. 출장자: 농촌발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김용택
식품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최지현

6. 세부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비고
12.5(금)	서울	청도	○ 출국, 청도 도착
12.6(토)	청도		○ 세미나 참석 및 주제 발표
12.7(일)	충도	서울	○ 서울 도착

7. 주요 출장내용

□ 세미나 개요

- 청도농업대학은 청도에 있는 내양대학교를 2007년 청도시립대학 형태로 발전한 대학임. 청도농업대는 청도가 한국과 인근한 도시로서 한국의 생산단계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산지의 농업생산자조직의 발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세미나를 초청하게 되었음.
- 특히 청도시는 한국과 농산물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의 선진화된 농업기술분야와 품질경영분야에 있어서 벤치마킹을 원하고 있음. 중국농산물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청도지역은 한국과 농산물 교역의 중심지로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문제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토론회 좌장은 청도농업대학 대학원 이수초(李樹超)원장, 토론은 이명국(李明國)교수, 통역은 이종수(李宗洙)교수가 각각 담당함.

□ 세미나 발표주제 내용과 토론요지

- 첫 번째 발표 주제는 청도농업대학의 축군(祝軍)교수의 “중국 식품안전관리체도의 문제점”임.
- 축군교수는 중국이 최근 수년동안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첫 번째, 위생환경개선, 공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처벌강화, 인증제도의 엄격한 추진 등을 제시하였음.
- 두번째 주제는 청도농업대학의 이보등(李寶藤)교수의 “중국 생산자 조직의 발전”임. 이교수는 중국의 생산자조직은 협동조합보다는 영농조합 성격이 강하며, 선농을 중심으로 영농조직을 결성하여 공동생산과 공동출하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서구의 협동조합체계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함.
- 세번째 주제는 “한국의 식품안전성관리 실태와 정책방향”로서 GAP, Traceability, HACCP 등 한국의 식품안전관리정책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소개하고, 정책추진과 관련한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함. 특히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에 수출입 농식품에 대한 정보를 사전 공유할 것을 제안함.
- 네번째 주제는 “한국 농업생산자조직의 발전과 과제”임. 한국의 경우 협동조합중심으로 생산자조직이 발전해 왔지만 명실상부한 생산자조직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따라서 중국의 경우보다 자생적인 조직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